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넘어 임마누엘(Immanuel)로!

: 기독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방향성을 고민하다

박영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비쿼터스' (Ubiquitous)는 세련된 첨단 과학 용어일 뿐 아니라 삶의 특별한 방식에 대한 신앙적 표현이기도 하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편재하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등의 의미를 지닌 'ubiqu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유비쿼터스만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한 용어가 또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 구석 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급속히 진전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편 139편 기자의 고백처럼 유비쿼터스의 의미를 삶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유비쿼터스 환경이란 서로 떨어져 있는 사물과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사용자가 컴퓨터나 유무선 여부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즉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뿐 아니라 휴대전화, TV, 게임기, 휴대용 단말기, 자동차의 네비게이터, 센서 등 독립형 컴퓨터가 아닌 모든 정보화 기기가 네트워크화 되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어떠한 장치에서도 대용량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고, 저요금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수백 대가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가상과 현실 공간을 결합한, 사람과 사물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공간에서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앨빈 토플러의 말을 빌리자면, 최근 인류 문명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보 혁명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제4물결인 유비쿼터스 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권리로 여겨질 수 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조금만 늦어도, 스마트폰이나 통신사를 대체하려는 조급함은 이제 당연한 생활 패턴이 되었다. 머지않아 거실을 비롯한 집

안 곳곳과 사무실, 자동차 등에 내장된 컴퓨터와 음성으로 대화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원하는 시간에 커피 메이커를 적절하게 작동시키고, 거실 블라인드를 자동으로 개폐하며, 생체 리듬에 맞추어 실내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유비쿼터



1. U-러닝시작하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2. 홍순구, 유비쿼터스의 이해와 활용 사례, 유원북스, 2014

스 환경과 교육을 접목한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했는데, 바로 Ubiquitous-learning이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인터넷 강의를 듣는 e-러닝에서,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도 동영상 강좌를 제공받을 수 있는 M(Mobile)-Learning을 거쳐, 이제는 U(Ubiquitous)-Learning이다. U-Learning이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콘텐츠를 전달받아 학습 성취도를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학습자의 필요와 선택에 의한 통합적 학습체제이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학습체제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2004) '언제, 어디서, 누구나, 편리한 방식으로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학습체제 즉, 에듀토피아(education utopia)'로 정의하고 있다.³ U-Learning 붐에 맞춰 공공도서관도 U-도서관으로 점차 변화해 가고 있다.

얼마 전부터 지방의 한 교육청에서 유비쿼터스 영어 놀이터라는 곳을 지역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영어 놀이터는 외관상 어느 놀이터와 큰 차이는 없지만, 어린이가 놀이시설 옆에 설치된 모니터를 누르거나 그 옆을 지나가면 영어로 설명해 주거나 말을 한다. 또 놀이터 내 정글 마트라는 곳에서는 장난감 과일이나 빵을 모형 계산대에 올려 놓으면 'apple', 'bread' 등의 영어 단어를 가르쳐 준다. 정보 기술과 놀이 시설을 접목

하여 아이들이 영어 환경 속에서 놀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변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전자 칠판,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 환경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으로 구축되어 학생들이 교사 없이도 학생 카드에 내장된 컴퓨터 칩을 통해 학습 과정 및 진도를 관리 받는 시스템은 전형적인 U-Learning의 예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상적인 교육 환경일까? 특별히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기에 합당한 교육 환경일까? 유비쿼터스 시대에 익숙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무소 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혹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바로 바로 해결해주는 지니(genie)나 슈퍼 컴퓨터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기독교 교육가라면 누구나 이러한 질문 속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U-러닝시작하기, lbid
4. "경남 양산에 전국 첫 유비쿼터스 영어놀이터 등장", 연합뉴스, 2014-03-27

사실 교육은 원래부터 유비쿼터스적인 특성이 있다. 역사상 삶의 현장 어디에나 늘 가르치고 배우는 이동성과 편재성이 있었다.⁵ 성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다음 세대들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⁶ 이러한 특성을 이제 컴퓨터가 일부 그러나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급변하는 사회, 교육 환경이라고 그리 겁먹을 일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부모, 교사들이 세상을 이기는 지식과 삶의 실천 방법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이다.

먼저 유비쿼터스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뺨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⁷ 분별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적용할 삶과 교육 전략이 모두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일 수는 없다. 물론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전략이 세워지고 검증되겠지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⁸하게 할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주는 유익과 편리함들은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누리되,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찾도록 용기를 내자.

또한 이 시대의 기독교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음 세대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은 모두 독특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독특성은 남들보다 훨씬 느리게 유비쿼터스 기기들을 이해하거나, 전혀 그것들을 작동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된다. 또 오지의 선교사 자녀들처럼 가장 기본적인 학교 교육

조차 받기 힘든 이들도 많다. 모든 학생들의 특성과 상황이 U-Learning에 적절한 것은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교육과 삶의 현장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유비쿼터스 환경을 심분 활용하여 그들에 대한 기초 정보, 정서, 주변 환경들을 충분히 반영,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도록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특성은 한마디로 네트워크에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네트워크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곳은 필요하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되고, 어디서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며, 함께하는 이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일상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곳, 서로 돌아보며⁹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 우리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는 곳이다. 하나님은 유비쿼터스하시지만, 스스로를 제한시키셔서 우리 곁으로 임마누엘(Immanuel)하셨다. 비록 컴퓨터라는 기기를 통해서지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신나는 유토피아적 생활이 점점 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소외되고, 뒤처지고, 잊혀진 이웃을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 교육의 방향성이며 하나님의 유비쿼터스적 성품에 응답하는 삶이다.



박영주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교수이다. 서울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중앙기독교초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현장 경험을 하였으며, Philadelphia Biblical University에서 MS in Education, Columbi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기독교학교 리더십으로 Ed.D를 취득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이 통합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태국 및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다문화 상황에서의 기독교 교육 실천을 통한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5. U-러닝시작하기, lbid
6. 신6:7, 수1:8, etc.
7. 마10:16
8. 고후 10:5
9. 히10:24-25